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빛을 이용한 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on in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Exhibition Space

- Focused on Exhibition Utilizing Light -

Author 박은아 Park, eun-a / 정희원,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인테리어전공 석사과정
한혜련 Han, Hae-Ryon / 이사,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Exhibition space emphasizes the experience in the space rather than viewing or appreciation of visitors. Because the experience spaces in today's life are limited, people experience rest, comfort, and sometimes extraordinary space experience through exhibition space. Exhibition space has changed from a static place to a space where visitors move and act with the exhibits to freely feel the space. Also, the static space expressed only with illumination and shadow becomes a new space different from daily space for user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 through such user-oriented exhibition spac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y through the exhibition experience space structure. It is to analyze and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 of the exhibition experience space structure centered in the opinion of Merlo-Ponti that considers the experience of body among 'characteristics'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of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published up to date and the viewpoint of Steven Hall that sees light as a subject of creating the space. This study is also considers how the perception of the experiencer is built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enomenology and exhibition experience space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of the experiencer that is the common point of the exhibition experience spac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 and analyzing the common point and difference of them. It also focuses on the space of dark whether forming any light rather than looking at the light which is the sense factor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n whether there is any light or not applied to the exhibition experience space grounded by the theoretical materials of Merlo-Ponti and Steven Hal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s in the exhibition experience space structure and, based on the result, to set up the basics on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expressions in the composition of exhibition experience space.

Keywords 빛, 어둠, 지각과 인지, 전시체험공간, 현상학
Illumination, Darkness, cognition, Cognition, Experience Exhibition Space, Phenomenolog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시체험공간은 체험자 중심으로 관람이나 감상이 아닌 공간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삶속에서 경험공간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체험 공간을 통해 일상공간에서 벗어나 내면의 쉼, 편안함을 채우며 때로는 일탈적인 공간경험으로 즉, 체험을 한다.

전시체험공간¹⁾은 점점 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체험자가 전시물과 함께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자유롭게 공간을 느끼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신조어로 전시체험공간이 형성 되었다. 또한 빛과 그림자로만 표현된 정적인 공간은 체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체험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일상공간과 다른 전시체험 공간을 느낀다.

체험자 중심의 지각 체계를 중시하는 현상학적 표현특

1) 본 연구에서 전시체험공간이라는 용어는 전시(Exhibition Space)+ 체험(Experience)+공간(space)으로 전시공간에서의 직접 몸으로 느낀 체험으로 전시를 알아가는 공간이다.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성은 전시체험공간구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론고찰을 통해 분석된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공간 속에서 체험자의 경험(감각자극)과정을 통해 공간지각이 이루어진다.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 체험자의 공간지각을 보면 감각을(stimuli) 자극 하는 공간구성을 통해 체험자의 감성은 변화한다. 감각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체험자의 반응(response)으로 현상학적 표현특성인 체험자의 공간지각과정(감각-지각-인지)을 전시체험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 현상학적표현특성으로는 빛으로 인해 변화하는 공간(현상)을 통해 공간중심인 체험자의 감성이 변화하며, 빛의 유무에 따라 공간 체험이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표된 현상학표현 연구를 기초로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던 현상학 ‘특성’중 몸의 체험을 중시하는 메를로 폰티 견해와 빛을 공간 생성의 주체로 본 스티븐 홀의 빛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중심으로 빛의 유무에 따른 전시체험공간구조의 현상학적표현 특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위해 전시체험공간의 개념과 현상학표현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전시체험공간구조와 현상학표현특성의 공통점인 체험자의 관계를 고찰 하여 체험자의 지각이 현상학과 전시체험공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축되어지는가를 고찰한다. 현상학표현특성 중 감각요소인 빛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유무에 따라 형성되는 어둠의 공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체험공간구조에서의 현상학적표현특성을 바탕으로 메를로폰티와 스티븐 홀의 이론적 자료를 통해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특성 “몸” 체험과 스티븐 홀의 현상학특성 “빛”등 여러 현상학적표현특성을 전시체험공간을 통해 알아보고, 빛의 유무에 따른 사례를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통하여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에 관하여 전시연출의 방법에 기여될 수 있는 기초를 정립 하고자 하는 것이 이의 목적이다.

<표 1> 현상학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분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년도	연구자	논문주제	현상학표현특성
스티븐 홀	A1	2005.12 손광호 김강섭	종교건축수공간의 현상학적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학, 체험, 수공간, 장소, 시간
	A2	2004.04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연구	스티븐 홀, 현상학, 음악
	A3	2003.08 김영희	스티븐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의 바르록의 ‘현과타악기와 체레스타를 위한 음악’의 표현에 관한 연구	스티븐 홀, 현상학, 빛과 물의 작용
	A4	2001.06 안우진 손광호 고성룡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현상학, 박물관, 메를로폰티(상하, 깊이, 운동)

메를로 폰티	A5	2012.10 김시내 김문덕	안도 타다오의 박물관 건축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현상학, 박물관, 메를로폰티(상하, 깊이, 운동) 안도타다오
	A6	2011.11 정진원 소병일	현대 성당 공간구성요소의 현상학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상하, 깊이, 거리 시간, 운동, 장소, 신체감각
	A7	2007.11 송아람 김문덕	박물관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상학 (시·지각, 움직임, 빛과 색채, 장소성), 박물관, 체험, 전시
	A8	2006.12 이찬 김태우	메를로-폰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한국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메를로폰티 (상하, 깊이, 운동, 장소), 현상학, 신체, 체험, 공간지각, 전통공간, 독락당
	A9	2006.11 김미례 김문덕	종교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빛, 종교건축, 현상학(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탈물질성, 환상성), 메를로 폰티, 공간인지
	A10	2006.04 서정연	현대건축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중심성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중심성, 탈중심, 경계, 축, 체험
	A11	2005.11 곽문정 조용수	메를로폰티의 현상학적 공간지각 방법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메를로폰티 (상하, 깊이, 운동) 현상학, 공간 지각, 체험된 공간, 체험
	A12	2005.10 곽문정 김기수 조용수	메를로폰티의 신체현상학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메를로폰티 (상하, 깊이, 운동), 현상학, 공간지각, 체험된 공간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시체험구조에 따른 현상학 표현특성의 공통성에서 출발하여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을 통해 빛의 유무에 따른 체험자와 공간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상학적 표현특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상학적표현 개념과 현상학 공간에서 중요시되는 ‘주체’ 현상학공간과 체험자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현상학표현 특성으로 논의되었던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의 특성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이론고찰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과 전시체험공간에 대한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의 결과로 전시체험공헌상학에서 몸의 체험을 중시하는 메를로 폰티의 현상적 논의를 통하여 고찰 및 현상학표현 특성을 개념정리 한다. 건축공간에서의 현상적 빛의 표현 방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을 건축디자인에 적용하는 건축가로 알려진 스티븐 홀의 현상적 빛의 표현 수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표현특성 기준으로 전시체험공간구조에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시체험공간구조에서의 빛과 공간의 관계와 공간과 체험자의 관계를 인지맵을 통해 표현하였다.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표현 특성을 각각 고찰한 후, 전시체험공간구조와 현상학적 표현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념과 표현방법, 특성을 분석한 후 분류한다.

3장에서는 현상학, 건축, 공간 중심어로 선행연구의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가 많이 다뤄진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표현특성 핵심어를 추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특성 “몸” 체험과 스티븐 홀의 현상학특성 “빛” 등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4장에서는 사례분석으로 최근 2000년 이후 전시체험공간을 선정 하였다. 전시체험 공간 중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구성으로 빛의 유무에 따른 전시체험공간을 선정하여 3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어를 추출하여 구성된 연구모형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모형으로 전시체험공간구조에서의 빛을 이용한 빛의 유무에 따라 공간과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체험자와의 현상학표현특성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현상학적 표현배경과 개념적 고찰

2.1. 현상학적 표현특성 공간지각의 이론적 고찰

(1) 현상학의 개념적 고찰

현상학은 실제적인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상을 연구하는 철학적 사조를 지칭한다.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현상’은 특정한 마음의 형이상학에 좌우되지 않고 무엇이든 지향적 의식에서 직접 주어지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다.²⁾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은 ‘의식’은 무엇을 지향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향성이라고 정리했다. 후설의 지향성을 발전시킨 메를로 폰티는 후설의 ‘의식’을 무엇을 지각한다는 것이고 그 지각과 지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³⁾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통해 인간은 ‘현상’을 통해 감각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했다. 경험은 감각을 자극하여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다. 인간은 많은 경험으로 인해 감각을 느끼고 인지하게 되며 현상학적표현을 느끼며 살아간다. 공간을 지각하는 것은 마음의 형이상학에 좌우되지 않고 현상학적표현 특성의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인식해 가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감각/지각, 상상력, 기억, 오성/이성, 조작력 등을 들 수 있으나 최고는 감각이라 할 것이다.⁴⁾ 인간만 갖고 있는 감각으로 다음의 <그림 1>⁵⁾과 같이 경험요소를 감각기관으로 통해 느끼고 지각하여 인지하며 인식하는 과정으로 경험요소를 체험하는 것이다.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요소 중 전시체험공간뿐만이 아니라 빛에 의한 공간적 인지 방식은 공간과 내외적 형태를 지각하는 바탕이 되며 그것은 공간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우선 공간의 인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명암의 정도에 따른 윤곽에 의해 현상 된다. 빛과 어둠(그림자)로 이루어져 하나의 현상학적표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림 1> 빛의 공간에서 현상학적 지각과 인지

공간은 빛에 의해 공간을 감싸다가 빛나는 표면에 의해 반사되고, 그 자체가 다시 상대적인 명암을 가진 물체 위에 떨어져 새로운 인지체계를 형성한다.⁶⁾ 빛으로 형성된 전시체험공간은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써, 인식하는 과정의 매개체가 된다. 공간인식은 빛과 그림자에 의한 깊이감은 체험자의 이동에 따른 변화로 영향을 받는다. 빛의 공간현상은 체험자로 하여금 경험의 요소로써 반응을 일으키며, 경험과 반응을 통해 체험자는 인식하는 위<그림 1>와 같이 현상학적 빛의 지각과 인지 과정을 통해 전시체험공간을 인지한다. 즉, 체험자는 감각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의 지각 하며 인지하는 것이다.

(2) 현상학적 표현특성의 주체

현상학적표현특성의 주체는 ‘인간’이다. 주체인 인간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 현상을 중요시하는 것이 현상학적표현 특성이다. 현상학에서는 객관적 사고는 지각의 주체를 무시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 사고가 기성의 세계를 모든 가능한 사건의 환경으로서 자신에게 제공하기 때문이고, 지각을 그 가능한 사건의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감각에 ‘운동적 수반’이 있다는 것을, 자극이 감각이나 성질과 연결되어 그 주위에 무리를 형성하는

<그림 2> 현상학적표현특성과 주체와의 관계

‘태동하는 운동’을 터뜨린다는 것을 행동의 ‘지각적 측면’과 ‘운동적 측면’이 상호 교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⁷⁾ 인간이 움직임에 따라 신경계통 감각이 활동하면서 지각적 측면은 상호 교통하면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위<그림 2>⁸⁾와 같이 현상학적표현 특성에서는 선험적 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공간의 현상을 통해 주체의 인간을 통해 지각하는 인식이 이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2) 김영민, 현상과 시간, 도서출판까치, 1995, p.44

3) 김동규, 피에르 테브나즈,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2011, p.35

4) 변대중, 현상학적 지각체계에 의한 정위와 사건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02, p.70

5) 변대중, 전제서, <그림 2>참조, p.70

6) 김미래 외 1명, 종교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8권 2호 통권90호, 2006.01, p.137

7) 류의근, 메를로-폰티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02, p.321

8) 변대중, op, cit., p.71

2.2.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 현상학적 표현특성

현상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후설은 가시적인 현상을 평가절하해온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물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현상학이라고 했다. 즉 현상학은 본질을 서술하는 것이고, 일체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정의하는 일에 귀착하는 것이다.⁹⁾

후설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본연의 현상학을 강조한다. 하지만 후설에 이어 메를로 폰티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건축공간까지 현상학표현특성을 표현한 스티븐 홀의 현상학표현특성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표현특성

<그림 3> 메를로폰티 현상학특성 및 공간의 빛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 특성은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것이다.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몸’으로 인하여 공간의 현상을 지각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메를로 폰티가 말하는 공간성 첫 번째, 상·하에 대한 공간성은 경험주의에 따라 방향성과 공간성은 연출하는 감각적인 내용에 이미 즉각적으로 결정되어 경험하는 의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한다. 바로 공간에서 체험자가 경험으로 형성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¹⁰⁾ <그림 3>¹¹⁾은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 특성을 하나의 도식화로 표현하였다. <그림 3>에서처럼 E 사람이 거꾸로 있어도, 공간은 거꾸로 움직이지 않는다. E 사람의 시·지각에 의해서만 거꾸로 보이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체험자 경험에 으로 움직이는 상·하 메를로 폰티의 공간성이다. 두 번째, 깊이의 공간성이다. 메를로 폰티에 따르면, 경험주의자인 버클리는 거리 내지는 깊이는 주관적이라 했다. 그 이유로 그는 우리가 주어지는 사물의 앞만 볼 뿐 그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앞과 더불어 뒤를 볼 수 있어야 깊이를 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림 3>과 같이 체험자의 시선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앞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평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는 <그림 3>에서 체험자/관찰자 A, B, C, D의 시·지각의 경험을 통해 경험공간이 보이듯이 깊이에 대한 깊이 진

정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의 깊이로써 ‘경험’에 의한 깊이의 공간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공간성이다. 관찰자/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이 움직이고 그 공간마다 감각을 느끼며 공간성은 주체의 삶의 역동적인 상황이다.

<그림 3>에서 A, B, C, D 체험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므로 지각되는 공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객관적인 사물 간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의식의 구성에 의한 것만도 아니라고 메를로 폰티의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를 통해 메를로 폰티의 마지막 공간성은 즉 관찰자/체험자의 운동성에 의한 공간성을 알 수 있다.

(2) 메를로 폰티의 빛의 공간특성

메를로 폰티가 『행동의 구조』에서 밝히고 있는 현상학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는 ‘실제적인 빛(Lumiere)’과 ‘현상적인 빛(Lumiere phenomenological)’의 구분을 통해 객관적인 과학 세계와 현상세계 간의 대립을 이해시키고 있다. 가령 벽에 등근 관점이 나타나 여기저기 위치를 바꿔 옮긴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관점이 주위를 끄는 대로 그것을 향해 시선의 방향을 돌릴 것이다. 이때 관점의 움직임은 나의 행동(시선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이런 설명은 현상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빛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비추고 다시 반사되어 내 눈의 망막과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된 대상을 보게 하는 실제적인 빛은 나(체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극은 실제적인 빛이고 이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결과로서 행동)을 한다. [자극→반응; 행동(결과)] 하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자극되어 다시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반응→자극(반응)] 메를로 폰티에 의하면 ‘현상의 장’에서 볼 때 과학적인 실제의 빛이 되는 순수한 자극은 없다. 자극이 이미 반응이다.

과학은 ‘실제적인 빛’을 연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과학의 실제적 빛이 아니라 ‘현상적인 빛’을 얘기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빛이란 실제적인 빛이 아니라 현상적인 빛이다. 실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은 과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순수한 ‘물리적 사태(事態)’가 아니라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 빛은 빛을 받아드린 나(체험자)가 느끼는 감각적인 자극을 말하는 것이다.¹²⁾

공간에서 비추어지는 빛은 실제적인 빛이 아닌 공간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써 작용한다. 공간의 하나의 요소로써, 체험자는 감각의 자극을 통해, 체험자와 공간은 움직이는 자극공간이 되고 공간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9)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p.189

10)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2004, pp.333-334

11) <그림 3>에서 공간의 빛 자연광과 인공과 모두를 포함한 그림이다.

12) Ibid., p.337

(3)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표현특성 및 빛과 공간

스티븐 홀이 가장 주목하는 현상이 빛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학자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란다. 건축은 빛을 형상화하고 그것에 구조와 형태를 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인지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빛은 늘 모호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¹³⁾

스티븐 홀의 건축요소를 살펴보면, 건축+빛이라 빛의 형상화를 통해 ‘체험’하는 공간을 건축공간을 통해 독보적으로 보여준다. 스티븐 홀이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메를로 폰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상상력 자극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로서 사고와 감정은 융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스티븐 홀은 특히 현상학에 관심이 많다. 인식과 육체 물리적 세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철학과 과학은 건축적 사고의 자연스러운 동반자이지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스티븐 홀은 그것들을 건축을 통해 물질성과 현상화의 연관을 통해 스티븐 홀만의 현상학적 특성을 살려 건축을 디자인한다.

스티븐 홀의 작품세계를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과 다른 점을 살펴본다면, 빛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몸’의 경험을 강조한다면, 빛으로 형성된 건축공간을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메를로 폰티의 영향을 받은 스티븐 홀의 건축공간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 특성은 충분히 잘 나타나 있다.

(4)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 비교분석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특성을 비교분석 하자면, 메를로 폰티는 현상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뤘다면 스티븐 홀은 메를로 폰티의 영향으로 빛을 이용하여 건축과 공간에 현상학의 특성을 표현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공간에서 체험자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메를로 폰티¹⁴⁾와 스티븐 홀¹⁵⁾의 현상학적 표현 특성을 정리하였다.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몸’체험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빛’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인 빛,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빛은 빛의 움직임에 따라 체험자의 감각에 따라 공간의 감각 체험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표현 특성을 이론 고찰한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표 2>¹⁶⁾과 같다.

<표 2> 메를로폰티와 스티븐 홀 현상학표현특성

분류	메를로-폰티	스티븐 홀
현상학 표현특성	상·하	장소의 정박점
	깊이(거리)	인간의 지각경험
	운동	공간과 시간의 상호 얽힘
	공간에서의 몸(체험)중심	공간에서의 빛(체험) 중심

메를로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표현 특성을 통해 빛의 유무에 따른 전시체험공간 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상학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메를로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성 중 메를로 폰티는 공간에서의 ‘몸(체험)’을 중요시 한다면, 스티븐 홀은 공간에서의 ‘빛(체험)’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메를로폰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표현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상학표현 특성과 전시체험공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전시체험공간의 개념적 고찰

(1) 전시체험공간의 개념

전시체험공간을 통해 ‘경험디자인(Experience Design)’을 체험자는 경험한다. 관람객의 행동양식을 위한 디자인이 바로 경험디자인, 전시체험공간이다. 인구통계학은 관람객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콘셉트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다. 테마형 전시는 일방적이기 쉽지만, 여기에 쌍방향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역동적인 전시를 펼칠 수도 있다. 전시 또한 쌍방향 요소가 적극 사용되며, 전시공간은 관람객이 만들어가는 전시공간이 되어 간다. 디자인의 초점은 공간특성이 아니라 시간성이다. 경험 디자인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관람객이 전시의 교육 콘텐츠나 전시 전반에 갖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화, 해설 장치 등을 사용하여 경험 디자인을 실제적인 대화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¹⁷⁾ 전시체험공간은 공간속에서 체험자가 직접공간속에서 전시를 만들어가며 알아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을 통해 새로운 감각형성을 형성 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전시체험공간에서의 빛과 체험자의 관계

전시공간에서 빛은 새로운 공간을 체험자에게 제공한다. 실제로 벽과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 비친 빛 때문에 그림자가 형성되어 감각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형성한다. 전시체험 공간에서도 빛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다.

13) 이원경,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파주, 파주출판도시, 2012. p.337

14) 류의근, Ibid., pp.370-424

15) 안우진 외 2명,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 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호, 2001.6, pp.23-24

16) 류의근, Ibid., pp.370-424

17) 오윤성, 안 로렌스, 리 H. 스콜닉, 크레이그 버거, 전시디자인의 모든 것 공간 커뮤니케이션, 고려출판사, 1991, pp.36-38

전시체험공간과 체험자의 공간을 인지하는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감각, 지각 등의 종합한 ‘경험’이 작용하게 된다. 체험공간은 체험자가 빛에 의한 공간경험을 통해 대조되면서 감성을 자극하게 되어 공간의 인식과 체험의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공간 ‘체험’이란 체험자의 감정과 사고가 이입되기 시작하면서 대조된 개념으로서 지각적 차원 교감 공간개념 혼, 스키마, 이미지, 기억 등에 의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오감을 통하여 반응하고 이는 곧 12감각¹⁸⁾과 함께 공간각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빛에 의해 형성된 체험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인지과정에 의해 공간의 가치는 정의되고, 그 공간은 체험자의 감성체험을 느끼게 하고 피드백 작용을 통하여 다른 공간의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험자의 감각, 감성에 의해 또는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4> 빛의 전시체험공간 인지법

<그림 4>와 같이 빛은 체험으로 체험자에게 감각을 자극하여 공간의 인지 과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체험공간구성, 하지만 체험자에 의해 전시는 진행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전시 체험공간에서 중심은 체험자이며, 공간의 빛과 시간 면적은 체험자의 감각과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시체험공간은 공간과 체험자는 공간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이 서로 이해하고 알아간다.

공간에서 같이 유입되는 것은 빛과 시간이다. 체험자마다 빛과 시간의 양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체험자의 움직임과 동선, 체험자의 선행적인 경험으로 공간 경험은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은 전시체험 공간이지만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또는 선행적인 경험으로 변화하는 것은 빛과 시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4.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 표현관계

<그림 5> 전시체험 공간과 현상학적표현 관계

18) 촉각, 생명각각, 운동각각, 균형각각, (의지각각)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감정각각) 자아각각, 사고각각, 청각. 언어각각(인식각각)

위에서 현상학적 표현특성과 전시체험공간구성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를 통해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 표현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 공간 모두 체험자와 빛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간관계이다. 위의<그림 5>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상호작용 되는 특성이 많다. 첫 번째, 체험자 감각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진다. 감각을 지각하는 빛은 공간과 감각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상학적 공간에서도 메를로 폰티와 스티븐 홀 두 사람 또한 공간을 지각하는 경험주의 공간이다.

시·감각을 통해 공간을 지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체험자의 감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표현과 전시체험공간은 빛으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어떤 것보다 체험자가 담아가는 공간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체험’이란 뜻은 자기가 몸소 겪거나 그런 경험을 뜻한다. 전시체험공간구성 현상학적 표현은 ‘체험’ 즉 체험자의 움직임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전시체험공간 구성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빛의 유무에 따라 공간체험을 통해 감각의 변화를 통해 현상학적표현 특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체험자를 통해 분석 하고자한다.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 공간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 분석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은 전시체험공간과의 현상학적 공간을 비교분석을 통해 서로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 <표 3>을 통해 분석결과, 전시체험과 현상학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시체험 공간에서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한다.

<표 3> 전시체험공간과 현상학적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류	전시체험공간	현상학적공간
공통성	시지각중심	몸(체험)중심
	빛의 공간표현	빛의 공간감각
	체험자움직임	몸의 움직임(현상)
	장소성(공간의 의미)	선행적 보다 장소성 중심
차이점	선행적+경험	경험

3. 현상학적 표현특성분석

선행연구의 선정 기준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를 통해 현상학, 건축, 공간 ‘핵심어’ 기준과 최신 순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정리했다. 선행연구 된 핵심어를 현상학, 건축, 공간으로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메를로 폰티 16건, 스티븐 홀 4건 술츠 2건, 기타 2건 으로 나타났다. 총 24건의 선행연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현상학표현특성 결과 중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된 메를로폰티 16건, 스티븐 홀 4건의 연구를 선정하고, 2000년 이후의 선행연구를 선정하여 현상학표현특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앞의 <표 1>과 같이 년도, 연구자,

논문주제, 핵심어를 정리하였고 다음과 같이 요인탐색을 통해 현상학적표현특성을 추출하였다.

<표 4> 선행연구를 통한 현상학적표현특성의 요인탐색(1)

스티븐 홀						
	현상학적요인	A1	A2	A3	A4	합계
1	체험공간-(빛)	●	●	●	●	4
2	지각된 공간					
3	빛과 그림자, 색	●	●		●	3
4	시간의 지속과 지각	●		●	●	3
5	물, 소리	●			●	2
6	비례와 스케일	●		●	●	3
7	환경, 대지의 주변, 상호엮힘		●	●		2
8	체험공간-(몸)					
9	장소의 의미화					
10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1
11	시간성에 의한 현상변화	●	●			2
12	공감각적 체험					
13	경험과 기억의 연상					
14	상하, 깊이, 운동					
15	신체감각					

<표 5> 선행연구를 통한 현상학적표현특성의 요인탐색(2)

메를로퐁티											
	현상학적요인	A5	A6	A7	A8	A9	A10	A11	A12	합계	
1	체험공간-(빛)					●				1	
2	지각된 공간				●				●	2	
3	빛과 그림자, 색			●						1	
4	시간의 지속과 지각										
5	물, 소리										
6	비례와 스케일										
7	환경, 대지의 주변, 상호 엮힘										
8	체험공간-(몸)	●	●	●	●	●	●	●	●	8	
9	장소의 의미화			●							
10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	●		●		●		5	
11	시간성에 의한 현상변화					●					
12	공감각적 체험	●			●		●	●		4	
13	경험과 기억의 연상										
14	상하, 깊이, 운동	●	●		●	●	●	●	●	6	
15	신체감각		●							1	

메를로 퐁티와 스티븐 홀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이 아닌 전시체험공간에서의 ‘몸’에 의한 체험과 빛의 유무에 따른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현상학적표현특성의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표 1>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규정한 17개의 기존문헌에서 추출한 모든 현상학적 요인을 나열하였다. 그 과정에서 같은 의미와 단어의 항목은 합쳐 분류하였다. 다음<표 4>, <표 5>와 같이 총 15개의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5개의 요인 중 1-7은 스티븐 홀 요인으로, 8-15는 메를로 퐁티의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메를로 퐁티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에서 중점으로 생각

하는 1-체험공간(빛)/8-체험공간(몸) 각 선행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체험자의 체험으로 지각의 공간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표현특성이 체험공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표 5>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 15개 요인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스티븐 홀의 선행연구에서는 A-체험공간(빛), B-빛과 그림자 색, C-시간의 지속과 지각, D-비례와 스케일 요인을 추출하였고 메를로퐁티 선행연구에서는 A'-체험공간(몸), B'-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C'-공감각적 체험, D'-상하, 깊이, 운동 현상학적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6> 현상학적표현특성 연구모형

분류	스티븐 홀		메를로퐁티	
현상학적 표현특성	A	체험공간-(빛)	A'	체험공간-(몸)
	B	빛과 그림자 색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C'	공감각적 체험
	D	비례와 스케일	D'	상하, 깊이, 운동

4. 빛의 전시체험공간 분석 및 종합분석

4.1. 빛의 전시체험공간 사례분석

<표 7> 전시체험공간구성 분석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구성				
	년도	전시체험공간	주관 및 작가	공간특징
1	2013	예술의전당	빛-빛나는 미술관 (백남준 외)	빛의 다양성이 표현된 공간
2	2011	상상특목미술관	크루즈 디에즈	빛과 색이 다양하게 표현된 공간
3	2010	뮤지엄비온드뮤지엄전시관	도쿠진 요시오카	빛과 물성의 표현 공간
4	2010	신촌버티고 타워9층	어둠속의대화 (N-VISIONS)	빛이 없는 어둠속의 공간
5	2008	오를갤러리 토탈미술관	제임스터렐	빛과 공간의 예술가

사례분석 대상으로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을 선정하였다. 현상학적 표현특성요소 ‘빛’에 대한 분석과 빛의 유무에 따른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고자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 공간을 선정하였다. 전시체험공간 구성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에서 중요시하는 감각자극 요소인 ‘빛’ 요소를 추출하여 전시체험공간구성 대상을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구성 중심으로 최근 2008-2013년까지의 전시체험공간 구성으로 최근에 전시된 공간구성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시체험공간을 <표 6>의 현상학적 특성 요소를 통해 현상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공간의 특징은 사례연구와 각 공간별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실시하여 분석하였다.

(1) 빛-빛나는 미술관의 전시체험공간

<표 8> 예술의전당 전시체험공간구성분석

분류	빛-빛나는 미술관 전시체험공간		
스티븐 홀	A	체험공간 (빛)	15명의 작가들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빛의 공간을 표현함.
	B	빛과 그림자 색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일상에서 흔히 보아왔던 빛을 예술과 공간으로 경험 할 수 있음.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빛으로 인해 변화하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감각을 일깨운다.
	D	비례와 스케일	거대한 물고기와 바다를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표현한 공간 비례와 스케일 느낌이 있다.
메를로퐁티	A'	체험공간 (몸)	직접 빛을 들고 몸으로 공간표현 어둠속에서 나만의 다양한 빛을 연출시킨다.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순간의 빛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공간의 벽에 그림자를 표현하는 공간.
	C'	공감각적 체험	어둠속에서 빛으로 인해 체험을 통해 다른 감각 까지 일깨워 준다.
	D'	상하, 깊이, 운동	나만의 움직임으로 공간의 깊이와 빛의 체험을 한다.

<표 8> A-C-B-'D'과 같이 빛은 움직이지 않지만,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치듯 움직이듯 바닷속 물고기를 표현한다. 전시체험공간구성은 바다의 연상을 위해 빛 미술관의 전시체험공간구성은 각각의 공간별로 빛의 표현방식이 달라서 체험자의 '움직임'으로 이야기가 전달된다. 체험하는 방식이 기존의 전시체험공간구성과는 차이점이 있어 새롭다. 차이점은, 하나의 주제로 전개되는 공간이 아니라 빛을 주제로 여러 공간을 표현한다. 빛-빛 미술관의 전시체험공간구성을 통해 빛의 다양성을 통해 경험자극을 느낀다. 공간에는 모래와 푸른빛은 물결치는 빛으로 바다를 연상시켰다.

<표 8> A,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다. 공간 속에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빛으로 그림을 그려 나만의 다른 공간을 만들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표 8> C-D', 실제로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빛으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바로 느끼고 나만의 공간을 체험하는 공간은 새로웠다. 한정된 공간 속에 빛으로 인해 또 다른 벽을 만들어지고 벽들이 움직이고 나를 통과하기도 하며, 체험자로 하여금 새롭게 느껴졌다.

<표 8> B', 어둠 속에서 순간의 빛으로 체험자의 그림자로 공간디자인을 한다. 공간은 강한 빛으로 나의 몸짓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로 인해 공간을 표현하고 남겨진 그림자 공간은 또 다른 체험자에게 재미를 준다. 공간과 체험자가 '체험'을 통해 상호작용 되는 전시체험공간 구성이다.

(2) 크루즈디에즈 전시체험공간

<표 9> 상상특목 미술관의 전시체험공간구성분석

분류	크루즈디에즈 전시체험공간		
스티븐 홀	A	체험공간 (빛)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색의 빛의 때가 벽과 모든 물체에 비추지면서 빛의 움직임을 느끼며 자유롭게 체험하는 공간
	B	빛과 그림자 색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 조명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공간 각각의 색은 또 다른 색과 만나 제3의 색을 만들고 체험자는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체험하는 공간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속 실제 색상을 있는 그대로 체험한다. 공간 속에서 자신의 온몸과 여러 물체를 통해 빛의 색과 색의 변화를 체험한다.
	D	비례와 스케일	큰 원형 공간속에서 빛으로 인해 비춰지는 색상을 통해 다른 공간의 원형색과 겹쳐져 다양한 색을 만드는 공간
메를로퐁티	A'	체험공간 (몸)	인터랙티브 색채체험으로 직접 색을 만들어보는 공간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앞에서 본 색과 움직임에 의해 변화하는 색의 공간
	C'	공감각적 체험	하나의 감각을 통해 빛과 색의 다양함을 느끼는 공간
	D'	상하, 깊이, 운동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빛과 색의 공간 공간의 깊이나 공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크루즈디에즈 전시체험공간은 사람의 시각적 감각을 이용하여 착시를 일으켜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변화와 색의 변화를 일으켜 공간의 또한 움직이는 체험 공간을 느끼게 한다. <표 9>(A),(B),(C),(D), 색채의 공간 속에서 빛으로 다른 공간의 색채가 서로 겹쳐지는 체험 공간이다.

<표 9>(C), 벽, 바닥, 천정 온통 색채의 표현으로 공간을 통해 색채를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공간이다. 체험자의 움직임에 의해 색채의 변화를 느낀다.

<표 9>(A),(B'), 빛에 의한 색채의 움직임을 체험자는 느낀다. 체험자의 움직임이 아닌 빛의 움직임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표 9>(C'),(D'), 색채의 겹침으로 시·지각 감각경험이

형성된다. 빛이 없을 때, 색채는 인지하지 못한다. 감각을 통해 색채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3) 도쿠진요시오카 전시체험공간

<표 10> 뮤지엄비온드 뮤지엄전시관의 전시체험 공간구성 분석

분류	도쿠진요시오카 전시체험공간		
스티븐홀	A	체험공간 -(빛)	빛의 스펙트럼 전시 공간과 빛의 조화가 전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공간구성
	B	빛과그림자 색	물성+빛으로 인해 자연의 물결을 공간에 담아 표현 빛의 그림자를 잘 활용하여 공간의 표현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Rainbow chair로 공간속에서 빛으로 인해 비춰진 공간에 무지개가 떠오름
	D	비례와 스케일	자연이란, 스케일이 큰 거대함을 공간속에 빛을 통하여 공간을 표현함.
메트로폴티	A'	체험공간 -(몸)	빛을 전체적으로 비춰 공간속에서 직접적인 몸으로 감각으로 체험함.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빛의 사란은 체험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현상은 변화한다.
	C'	공감각적 체험	스스로 자라나는 작품 자연의 수정 같은 빛을 발한다. 빛으로 인해 공감각적 체험
	D'	상하, 깊이, 운동	체험자의 움직임으로 공간속의 현상은 상하 움직이며 공간의 깊이를 체험

도쿠진요시오카는 빛과 물성이 만나 그림자로 자연적 현상을 공간으로 표현된 전시체험공간구성 이다. <표 10>(A), 벽면 전체의 빛의 스펙트럼을 연상시킨다. 감동의 빛으로써 체험자에게 새로운 감각을 형성시킨다. 자연의 빛으로써,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공간체험을 형성한다.

<표 10>(A),(B),(C),(B') 빛+물성을 통해 자연요소를 공간에 형성한다. 체험자는 빛으로 인해 자연을 체험한다. 그림자에 비춰진 바다물결, 거대한 토네이도 자연의 공간을 빛+물성으로 표현한다. 자연을 공간으로 담아낼 수 없지만 도쿠진요시오카는 물성을 이용하여 빛과 함께 공간에 거대한 자연을 담아냈다.

(4) 어둠속의 대화 전시체험공간

<표 11>(A') 어둠 속의 대화 전시체험공간으로 입장하는 곳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곳(IN) 왼쪽은 나오는 곳(OUT)이다. 입장하자마자 어둠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표 11>(B') 어둠의 전시체험공간으로 입장하면 잠시 눈이 어둠을 인지하도록 로드매니저의 설명이 시작된

<표 11> 신촌 버티고 전시체험 공간구성 분석

분류	어둠속의 대화 전시체험공간		
스티븐홀	A	체험공간 -(빛)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속에서 공간을 체험한다.
	B	빛과 그림자 색	빛이 존재하는 않는 공간속에서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은 어둠뿐이다.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지 못하지만, 어둠의 공간속에서 감각으로 통해 지각하는 것은 높다.
	D	비례와 스케일	빛으로 인한 비례와 스케일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둠속에서 더큰 상상을 통해 비례와 스케일은 큰 공간을 만든다.
메트로폴티	A'	체험공간 -(몸)	직접 '몸'의 감각으로 공간을 체험한다.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감각으로 인지하는 공간은 달라지므로 현상의 변화가 체험으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C'	공감각적 체험	어둠속의 대화
	D'	상하, 깊이, 운동	어둠속에서 체험자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인해 공간의 깊이를 알아간다.

다. 어둠 속의 대화 전시체험공간은 어둠만이 존재한다.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표 11>(A),(B),(C),(D),(C') 그림과 같이 어둠속에서 1시간 30분 동안 체험하는 공간이다. 체험자들의 감각만으로 공간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표 11>(A') 전시체험자들의 대기실 공간이다. 어둠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빛의 공간으로 되어있다. 빛이 없는 어둠을 통해 어둠 속에서 만나는 공간과 체험자의 상상과 또는 감각자극으로 전시체험공간구성은 형성된다.

현상학적 표현특성인 '몸' 체험이 나타나 있는 전시체험공간이다. 어둠 속의 대화 전시체험공간은 완전한 어둠을 통해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공간을 체험한다. 우리의 생활은 시·지각이 80% 먼저 인지한다. 반면, 어둠 속의 대화전시체험공간은 빛이 없는 공간이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 체험자의 감각 자극으로 공간을 지각하고 인지한다.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이라 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하여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견이라는 발상에서 전

시는 더욱더 새로운 체험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 체험자는 완전히 감추기도 하고 비추기도 하며 체험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어둠을 통해 다른 감각들을 더 의지하고 시각을 배제함으로 인해 다른 감각들이 더 살아나 새로운 전시체험을 일으키는 전시체험 공간이다.

(5) 제임스터렐의 전시체험공간

<표 12> 오름갤러리, 토탈미술관, 섬박물관 전시체험공간구성분석

분류		제임스 터렐 전시체험공간	
스티븐 홀	A	체험공간 (빛)	어떤 실체적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빛의 장막만으로 공간을 형성.
	B	빛과 그림자 색	빛이 아니라 빛 자체의 정체성 즉 빛의 투명성, 불투명성, 부피, 색등을 지각하게 된다.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공간속에서 시간에 따라 빛은 변화하며 지각하는 현상도 변화한다.
	D	비례와 스케일	빛으로 공간속에서 비취 비례와 스케일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한다.
메트로폴리	A'	체험공간 (몸)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 빛은 공간속에서 착각을 일으킨다.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현상변화.
	C'	공감각적 체험	빛으로 공간 전체를 이론다. 하나의 공간으로 공감각적 체험을 경험한다.
	D'	상하, 깊이, 운동	상하, 깊이, 운동 등 공간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알아간다.

제임스터렐의 전시체험공간은 공간 전체를 이용하여 빛이 중점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체험자의 내면의 빛을 중시한다. 공간의 깊이와 상·하를 알 수 없다. 제임스터렐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학 표현특성이다. 빛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천장, 바닥, 벽의 끝을 알 수 없다. 체험자의 움직임과 바로 보이는 현상학적 공간인 것이다. 제임스터렐의 전시체험공간은 내면의 빛으로 체험자마다 다른 공간감각을 느낀다. 공간을 통해 체험자는 이전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공간 속에서 빛의 현상을 통해 체험한다. <표 12>(A), 공간의 천정을 통해 자연의 빛이 유입된다. 빛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의 색이 변화하면서 각각의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공간속에서 체험자의 위치에 따라 체험자의 현상학

표현특성은 달라진다.

<표 12>(B)는 <표 12>(A) 빛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나타냈다. 빛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은 변화한다. 빛만을 바라보면서 체험자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표 12>(B),(A'),(C'),(D') 빛으로 벽을 가득 채운 공간과 빛으로 표현된 푸른 프레임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변화 때문에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없다. 체험자의 움직임을 유도시키는 공간이다. 현상학적 표현특성 '움직임'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 구성이다. <표 12>(D), 빛으로 입체감을 형성시킨다. 공간 속에 채워진 빛에 의한 경험을 구성한 공간이다. 제임스터렐이 표현하는 '빛'은 명상적인 감정에 빠지게 하는 심리적인 빛, 그리고 영적인 빛으로써 체험자들이 직접 작품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빛'을 체험을 이야기한다. 오직 빛과 나만의 공간에서 빛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형성된다.

빛은 평평한 벽면에 빛을 투사해 입체적인 사각형을 만들며 빛은 벽을 움직이게 하는 매개체이다. 사각형이 공간에 떠있는 듯 그 깊이는 알 수 없다. 체험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은 벽 넘어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제임스터렐의 공간의 빛은 움직임뿐 아니라 체험자의 움직임에 대한 빛의 반응을 담은 것이다. 공간 속에 비치는 빛은 우리는 감각을 자극받아 반응하는 전시체험 공간이다.

4.2. 빛의 전시체험공간 종합분석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요인추출한 연구모형<표 6>을 통해, 전시체험공간별 <표 13>과 같이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전시체험공간과 공통성 많다. 체험자 중심으로 형성된다. 공간의 흐름과 공간의 초점은 공간특성이 아닌, 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공통성이다. 빛의 전시체험공간은 현상학적표현 특성과 같이 체험자의 감성과 감각을 중요하다. 감각으로 인해 전시공간의 현상은 변화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공간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의 유무에 따른 전시체험공간을 통해 빛과 어둠속에서 체험자들의 감성은 모두 변화하며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전시체험공간에서 분석한 소결은 아래와 같다.

빛의 전시체험공간분석결과, <표 13>(1),(2),(3),(5) 공간에서는 빛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써, 빛과 그림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과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변화에 따라 공간변화의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다. 체험자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공간들은 현상학적 표현특성이 잘 표현 되는 공간이다.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상학적 표현특성을 살펴봤듯이 감각자극을 통해 지각

<표 13> 전시체험공간구성에서 나타난 현상학적표현특성

순서	년도	주관및작가	이미지	현상학적 표현특성														
				스티븐 홀					메를로-퐁티									
				A	체험공간-(빛)	1	2	3	4	5	A'	체험공간-(몸)	1	2	3	4	5	
1	2013	빛-빛나는 미술관 (백남준 외)			B	빛과 그림자 색		●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			C'	공감각적 체험			●		
					D	비례와 스케일				●		D'	상하, 깊이, 운동				●	
2	2011	크루즈디에즈			A	체험공간-(빛)				●		A'	체험공간-(몸)				●
			B	빛과 그림자 색					●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			C'	공감각적 체험			●		
					D	비례와 스케일	●					D'	상하, 깊이, 운동				●	
3	2010	도쿠진요시오카			A	체험공간-(빛)				●		A'	체험공간-(몸)				●
			B	빛과 그림자 색					●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해당없음					C'	공감각적 체험	●				
					D	비례와 스케일				●		D'	상하, 깊이, 운동				●	
4	2010	어둠속의 대화 (N-VISIONS)			A	체험공간-(빛)	해당없음					A'	체험공간-(몸)					●
			B	빛과 그림자 색	해당없음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해당없음					C'	공감각적 체험				●	
					D	비례와 스케일				●		D'	상하, 깊이, 운동					●
5	2008	제임스터렐			A	체험공간-(빛)				●		A'	체험공간-(몸)			●
			B	빛과 그림자 색			●			B'	움직임에 의한 현상변화				●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		C'	공감각적 체험					●
					D	비례와 스케일	●					D'	상하, 깊이, 운동				●	

* 현상학적표현특성 정도 : ● 표시 1 2 3 4 5
낮음 높다 / 해당없음

하는 현상으로써 공간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에서는 빛이 감각인지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현상학에서도 다루듯이 감각 중 시각에 의해 지각 현상학이 인지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4)의 전시체험 공간에서는 빛이 없는 어둠 속의 공간 에서도 다른 감각들로 현상학적표현특성의 지각현상 인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감각형성을 통해 체험자는 공간 인지력이 높아 질 것이다. 하지만<표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빛이 없으므로 시간의 움직임은 알 수 없으나 더 새로운 감각체험을 할 수 있다. 어둠을 통해 빛의 공간을 더 알아가고 감각 중 하나를 제외하지만 다른 감각들 때문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다.

4.3. 소결

소결을 통해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의 현상학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표 14>와 같다. 소결 <표 13>에서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특성 중 연관성이 없는 특성은 제외하고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의 현상학적표현특성 분석결과

분류	1	2	3	4	5
	빛-빛나는 미술관	크루즈디에즈	도쿠진요시오카	어둠속의 대화	제임스 터렐
스티븐 홀	A 체험공간-(빛)	빛에 의한 색 체험 공간	빛+물성 빛에 의한 공간 형성	해당 없음	'빛'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공간

스티븐 홀	B	빛과 그림자 색	체험자의 움직임에 의해 빛의 변화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 공간	'몸'의 시지각 공간 체험	해당 없음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C	시간의 지속과 지각	빛과 그림자로 인한 공간 체험	빛에 의한 공간 색상변화	빛과 그림자에 의한 공간 형성	해당 없음	빛과 그림자의 공간 형성
	D	비례와 스케일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빛의 공간과 색채 공간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 속 자연은 함께 움직임	움직임에 의한 감각변화로 현상변화가 나타남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빛을 통한 변화
메를로퐁티	A'	체험공간-(몸)	빛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 지속	시간 속에서 지속과 지각으로 인해 색의 변화	해당 없음	어둠 속에서 몸으로 끼는 체험은 높아진다	시간의 움직임에 따른 빛의 공간 변화
	B'	움직임에 의한 현상 변화	공간 특성을 통한 감각적 경험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한 감각적 경험	물성에 대한 감각적 경험 공간	어둠속에서 감각만을 인지하는 체험 공간	공간을 채우는 빛에 의한 감각적 경험
	C'	공간각각적 체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스케일 공간	공간을 채우는 빛의 색채 체험공간	빛 스펙트럼 거대한 빛 체험공간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감각 형성	빛의 스케일에 의한 공간 형성
	D'	상하, 깊이, 운동	움직임에 따라 지각하는 공간 변화	빛의 움직임에 따른 색의 변화 공간형성	감각에 의한 지각 공간 형성	움직임에 의해 감각에 의한 공간지각	빛에 의해 공간의 깊이 및 지각 형성

5. 결론

첫째, 현상학적 표현특성은 전시체험공간구성과 공통성이 많다. 공간의 공간특성이 아닌 체험자에게 있다. <표 13>과 같이 (1), (2), (3), (4), (5) 전시체험공간 구성에서는 현상학적 표현특성 A 체험공간-(빛), A' 체험공간-(몸)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에서는 각각의 전시체험 공간의 현상학적 표현특성에 대해 분석 결과를 한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빛을 이용한 전시체험공간에서는 '빛'이 실제로 비치는 빛이 아닌 자극요소로써 감각자극을 통해 체험자에게 '지각의 현상'이 인지된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이 아닌 감각을 통해 공간형성이 이뤄지고 체험자에게는 새로운 감각과 공간을 형성시킨다. <표 13>, <표 14>에서 나타난 빛의 요소들은 빛이 없는 (4) 전시체험공간구성을 제외하고 체험자들에게 감각적 경험을 통해 공간구성의 지각매개체 역할이 된다. (1) 빛의 다양성 지각, (2) 빛+색채, (3) 빛+물성, (5) 빛의 움직임으로 빛이 전시체험으로 공간구성 되었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요소가 아닌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써, 빛을 이용한 전시공간뿐만 아닌 다양한 빛의 연출을 통해 체험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써, 새로운 전시체험공간구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감각형성을 통해 체험자는 공간 인지력이 높아진다. <표 13>, <표 14>에서 (5) 전

시체험공간 구성은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이다. 하지만 어둠 공간에서는 빛이 없어 시·지각이 제외되므로, 다른 감각들을 통해 또는 새로운 감각형성을 통해 공간인지력이 높아진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인 요소들이다. 빛과 어둠을 통해 체험자는 감각자극을 느낀다. 공간요소의 벽, 바닥, 천정뿐만 아니라 전시체험공간구성에서는 빛과 어둠을 통해 체험자에게 감각자극과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새로운 체험+공간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전시체험공간구성에 빛의 유무에 따른 다양한 현상학적 개념이 도입된 후속연구들의 기초연구로 기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권순관, 필립 휴즈, 전시디자인의 모든 것 공간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대가, 2012
- 김동규, 피에르 테브나즈,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그린비출판사, 서울, 2011
- 김영민, 현상과 시간, 서울, 도서출판가치, 1995
- 류의근, 메를로퐁티, 지각의현상학,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2
-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서울, 한신문화사, 1997
- 오윤성, 안 로렌스, 리 H. 스클닉, 크레이그 버거, 전시디자인의 모든 것, 서울, 고려닷컴, 2012
- 이보아, 관람객과박물관, 북코리아, 서울, 2008
- 이수정, 본연의 현상학, 서울, 생각의나무, 2011
- 이원경,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파주, 파주출판도시, 2012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2004
- 김미래·김문덕, 종교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8권 2호, 2006.11
- 변대중, 현상학적 지각체계에 의한 정위와 사건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02
- 서정연, 현대건축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중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2호 통권55호, 2006.4
- 안우진·손광호·고성룡,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호, 2001.6

[논문접수 : 2013. 03. 31]

[1차 심사 : 2013. 04. 23]

[2차 심사 : 2013. 04. 30]

[게재확정 : 2013. 06. 07]